

## “문화전당 콘텐츠·인력 직접 챙기겠다”

지건길 표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인터뷰 12면

### 광주서 매일 조성위원회 정례회의 개관 콘텐츠 시급...예산 확보 총력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컨트롤 타워’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가 제 역할과 위상찾기에 나선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차질없는 개관(2015년)을 위해 매일 한차례 광주 등지에서 조성위를 열어 문화전당 건립공정과 콘텐츠 개발을 직접 챙기기로 한 것이다.

광주 출신인 지건길(69·사단) 조성위원장은 14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문화전당 개관이 오는 2015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개관 콘텐츠 개발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문화전당 건립 현장인 광주 등지에서 매일 조성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 등에 맡겨두지 않고 현장을 직접 살피겠다는 것이다.

조성위는 위원장이 국무총리급인 법정부구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현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위원회가 매일 정례회의를 열고 꼼꼼하게 현안을 챙기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그는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과 관련, “전시·공연 등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전당의 개관을 3~4년 뒤로 미루고 싶은 심정”이라며 그동안 사업차질을 꼬집었다.

지 위원장은 “박물관(개관)은 ‘있는 유물’을 효율적으로 전시하면 되지만, 문화전당 5개원은 텅 빈 공간에 채워넣을 콘텐츠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제적으로 시선을 끌 수 있는 개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생각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원 가운데 하나인 ‘어린이문화원’을 어린이, 성인들이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공간이 되어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시급한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겠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부처의 협조를 이끌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문화전당의 전담인력 구성과 관련,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꺼리기 때문에 문화전당을 책임지고 운영할 인력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도 “새 대통령이 문화정책을 표방한 시기에 인력·직제·조직 운영안을 마련해 인력채용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위원장은 문화전당의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립중앙박물관 시절 정부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주문을 받았었지만, 자립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해 거부했었다”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어떤 형태로 운영주체를 정해야 할 것인지 연구·검토해 적절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3일(현지시각) 제 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76)이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중앙 발코니에 나와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 교황에 아르헨티나 베르골리오 추기경

### 교황명 프란치스코... 사상 첫 미주대륙 출신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76) 추기경이 13일(현지시각) 베네딕토 16세의 뒤를 이을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됐다. <관련기사 2면>

비유럽권에서 교황이 선출된 것은 시리아 출신이었던 그레고리오 3세(731년) 이후 1282년만에 처음이다. 또한 새 교황은 가톨릭 교회 2000년 사상 첫 미주대륙 출신이다.

교황 선출은 전날 개막한 이번 콘클라베에서 5번째 투표 만에 이뤄졌다. 새 교황 선출은 265대 교황인 베네딕토 16세의 갑작스러운 사임에 따른 것이다.

새 교황은 교황 즉위명으로 프란치스코를 선택했다. 새 교황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딴 즉위명을 선택한 것은 그가 청빈한 삶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1534년 로울라가 설립한 수도

회 예수회에서 배출된 첫 교황이다. 예수회가 영성 수련과 헌신을 생활 태도로 삼는 점 또한 즉위명과 부합한다.

로마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새 교황이 14일 시스티나 성당에서 교황으로서 첫 미사에 참석할 예정이고, 그의 즉위미사는 오는 19일 열린다고 밝혔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성 베드로 성당의 발코니에 나와 축복을 전하는 ‘우르비 엠포르비’(Urbi et Orbi·바티칸 시와 전 세계에게)에서 “좋은 저녁입니다”라고 말문을 연 뒤 환호하는 10여만 명의 신도들에게 “여러분의 환영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어가 섞인 라틴어로 “여러분이 알듯이 콘클라베는 로마에 주교를 앉히는 것이다. 동료 추기경들이 나를 찾기 위해 다른 세상의 끝으로 간

것처럼 보인다”고 가벼운 농담을 건넸다.

12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게 된 새 교황은 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 대주교를 맡고 있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받는 아르헨티나 가톨릭 교회의 현대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베네딕토 16세를 선출했던 2005년 콘클라베 당시 프란치스코가 최종 투표에서 2위에 올랐으며, 예상보다 쉽게 끝난 이번 콘클라베를 통해 새 교황이 많은 추기경들로부터 여전히 신뢰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모여든 수만 명의 신자들과 관광객들은 이날 저녁 콘클라베가 열린 시스티나 성당 골목에서 교황 선출을 알리는 흰 연기가 피어오르자 환호를 질렀고, 이어 성당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연합뉴스

## 미래부장관 최문기 공정거래위원장 한만수

### 법제처장 제정부 식약처장 정 승 보훈처장 박승훈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최문기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교수,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장에 한만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또 법제처장에는 제정부 법제처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완도 출신 정승 한국말산업중앙회 회장을 임명하고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승훈 현 처장을 유임시켰다. <관련기사 3면>

박 대통령은 이같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내정자의 자진 사퇴로 빈

자리를 채움으로써 17개 부처 장관 인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임명된 5개 부처 인사에서도 영남 출신이 3명이나 발탁돼 영남 출신 인사들의 비중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부(部)’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박 대통령이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과 ‘경제계의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장에 영남 인사를 앉힘으로써 영남정권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호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무총리실로 산하 ‘처(處)’로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초대 수장에 완도 출신의 정승 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이 임명된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신

주자이던 당시 ‘싱크탱크’ 격이었던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 출신인 최 내정자와 한 내정자가 포함돼 미래연 전성시대를 예고했다. 박근혜 정부 첫 17개 부처 장관 중 미래연 출신 인사는 윤병세 외교교통상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장관,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에 이어 최 내정자까지 가세, 4명이나 된다. 전체 장관의 4분의 1에 육박한다. 여기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포함하면 5명인 셈이다.

이번 인사 내용을 발표한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전문성을 중시했다”며 “경력을 보이면 인선배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래



최문기 한만수 제정부 정 승 박승훈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라며 “미래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대로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고, 공정위원장은 서류를 준비해 다음주 초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평생 소모품 무상서비스  
062)226-0001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암울했던 80년대  
마음불일 곳 없던 호남인들을  
포근히 감싸주던 잡지가 있었습니다.  
월간 **藝鄉**.  
깊은 한을 예술로 승화시켜온  
예술의 고장 호남과 호남사람들에게

이 잡지는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라도 대표잡지로 불리며  
18년간 매달 독자들의 손에 안기던  
월간 **藝鄉**은  
아쉽게도 2002년 봄 휴간을 맞게됩니다.

2013년 봄,  
보다 젊고 세련된 모습으로 월간 **藝鄉**이  
돌아왔습니다.

호남과 세계를 잇는 잡지  
호남인의 삶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가득한 잡지  
호남을 대표하는 고품격 문화 예술 교양지  
월간 **藝鄉**은 호남의 자존심을 지키는  
잡지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향 복간호(4월호) 3월 마지막주 발매  
정기구독 신청 접수중 062-220-0550